

일본, 타이어 수출가격 5-6% 인상

日本經濟, 고무·석유화학제품 가격급등 ... 중국 원자재 흡수력 막강

일본 타이어 생산기업들이 원자재 조달비용 증가를 이유로 수출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타이어 생산기업들의 수출가격 인상 움직임은 타이어 생산에 투입되는 천연고무와 석유화학제품 등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강력한 수요로 예전에 비해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브리지스톤은 북미지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의 수출단가를 최대 5%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브리지스톤은 아울러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수출단가 역시 5% 가량 올릴 계획이다.

Sumitomo Rubber Industries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중동, 북미, 유럽 지역에 대한 타이어 수출가격을 3-5% 높일 방침이다.

Toyo Tire & Rubber 역시 수출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먼저 중동과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가격을 3% 인상하고 추후에 북미 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 수출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앞서 Yokohama Rubber는 수출단가를 3-6%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2/10>